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통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8호 [루계 제25006호] 주제 104 (2015)년 8월 16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끌까지 완성하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꽂바구니 진정

【평양 8월 15일】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보신 만수대 언덕으로는 항일의 혁전만리를 헤치시어 조국해방을 이루하시고 전인민답의 험난한 선군길을 걸으시며 이 땅우에 태양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백두산칠세 위인들에게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뜨겁게 굽이쳤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꽂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 있었다.

당, 무력, 청원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



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의 명의로 된 꽂바구니와 꽃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 되었다.  
부의 명의로 된 꽂바구니가 진정 꽂바구니들이 맹기에는 『위대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결의를 가다듬었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당, 무력, 청원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평의회와 외국의 단체, 인사들이 꽂바구니와 선물을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평의회에서 선물을 찾았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로씨야련방평의회 대표단 단장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예브게니 부슈민 부의장이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김영남동지에게 전달하였다.

\* \*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조선친선협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라오스조선친선협회 대표단 단장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라오스최고인민재판소 소장인 카반 셀티담과 부위원장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 \*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와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대성그루빠에서 꽂바구니와 선물을 보내여왔다.

또한 조선평화통일기지 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기지 일본위원회, 에스파냐에 본부를 둔 조선파의 친선협회에서 꽂바구니와 선물을 드렸습니다.

본사기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당, 청원기관, 대국, 군도단체, 성, 중

당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국해방의 은인이시며 철새의

에 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명의 명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

한 분위기로 훈성되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편 꽂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맹기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

는 글들이 죄여져 있다.

참가자들은 존엄한 경의 표시하였다.

꽃바구니는 훈성으로는 당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편 꽂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으로 된 꽂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편 꽂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꽃바구니는 훈성으로는 당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

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해방적과 조국건설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나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굽게 풀쳐 우리 조국을 통일되고 끌어서 강성번영하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민족에 떨쳐갈 혁명적열의에 넘쳐 있다.

한편 이날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이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 유의

지통치를 꼽았고 당국의 비운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

였으며 훌륭불폐의 선군정치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의 조국의 존엄과 기상을 온 누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

국방성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로써야련방 국방성대표단 단

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창건자이시며 주석이신

본사기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조 외교

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연구소조 책임자인 마르린 희체르트, 로씨야

야련방 국방성대표단, 일본조

선인민족통일기지 일본군대 표단, 충

남군대 표단을 비롯한 외

국군대 표단을 세워져 있

던 국제기구 대표들, 세계인민

연맹, 세계인민연합회 대표단, 세계

평화연맹, 세계인민연합회 대표단, 세계



# 력사적인 조국해방을 안아온 백두의 그 높파 기상으로 자주통일의 민족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자!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온 삼천리강산이 조국해방의 환희로 들끓고《조선독립민족!》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였던 위대한 혁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40여년간 걸치는 강도 일제의 중세기적인 심민지통치를 끌어내고 우리 혁례가 조국해방을 맞이한 것은 만년민족시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일대 사변이었다.

『시 일 았 성 대국』이 구천에 사무치고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오른 바로 그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칭찬한 조선의 탐방들에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여 조국해방의 총성을 높이 울리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직 민족대중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찾으실 애국의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강력한 주체적혁명력을 품어 하시었으며 피어린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에 이르시여 마침내 조국해방을 안아오시였다.

진정 혁사의 그날이 있어 우리 민족이 구원되고 세계지도에서 영광사라질뻔 하였던 우리 조국이 재생의 새봄을 맞이하게 되었다.

혁사적인 조국해방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해내외 온 혁례는 지금 20성상 백두의 눈보라만리, 협진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부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신 조국해방의 은인이시며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더불어 있다.

백두산 줄기 줄기와 암록 강줄이 굽이에 새겨져 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피어린 항일무장투쟁

역사와 조국해방업적은 무궁번영할 민족과 더불어 천민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조국해방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멀리 전진하였다.

그러나 우리 혁례는 전민족적범위에서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민족분열의 비극과 고통은 세기를 넘어 지속되고 있다.

해방의 환희와 기쁨이 분열의 아픔으로 바뀌고 삼천리강토가 두통강 난재 북파 남이 서로 충부리를 맞대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로 70년이 되는 오늘까지 지속될 줄 파악 누가 상상이나 하였는가.

지금 온 혁례의 가슴가슴에는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세에 대한 참을수 없는 원한과 치솟는 불노의 피가 끓고있다.

우리 민족의 영구분렬을 끼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침략의 무리들이 오늘도 북남사회의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면서 이 땅에서 혁명정의의 불길까지 터져 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빛들이 졌던 남조선의 보수정권은 민족의 부구대천의 원주민 미국에 이부굴종하여 동족사이의 제제대결과 전쟁도발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해내외 온 혁례는 거족적인 반일항전으로 일제를 물어내고 조국해방을 맞이하였던 백두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반미대결전에 총궐기해나서야 할 때이다.

이제 더이상 갈라져 살수 없는 우리 혁례이자 조국의 절반땅이 외세에 짓밟혀 몸부림치는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둘수 없는 우리 민족이다.

우리는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분렬의 고통을

들어온

미제침략군을

남녘땅에서

물어내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의지를

안고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밀려온

비극적인

현실을

맞대고

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혁례는 전민족적범위에서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민족분열의 비극과 고통은 세기를 넘어서 조선민족에게 열렬히 흐소 한다.

해내외동포들이여!

일제에게 배았지만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세계의 애국자이시며 항일의 절실히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안고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열렬히 흐소 한다.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분렬의 고통을 들의 위운 미제침략군을 남녘땅에서 물어내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안고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열렬히 흐소 한다.

담보가 있다.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가시며

우리

민족의

백전백승의

혁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높이

시작하는

의지를

갖고 해내외

전체

조선민족에게

열렬히 흐소 한다.

온 거례가 총궐기해나서자!

우리

거례가 사는 모든

곳에서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울자!

조국

통일

3대

현장과

역사적인

현장을

대한

거례인

6·15

공동선언

6·15

# 백두산 절세 위인들께서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에 쌓아 올리신 애국업적은 영구 불멸할 것이다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가 「백두산 절세 위인들께서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에 쌓아 올리신 애국업적은 영구 불멸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대예 양지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제식민지 통치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조국해방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70년세월이 훌쩍过去了。

역사의 이날을 맞을 때마다 우리 총련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여 이 역량에서 전대 밭고 버립만 재일

## 조국해방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에서 일어난 전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20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날을 안아오신것은 우리 재일동포들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일대 사변이었다.

조국해방의 그날 재일동포들의 가슴가슴은 민족재생의 화회, 해방의 갑작으로 새롭게 끊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첫 시기부터 우리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길을 헤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34(1945)년 8월 20일 군사정치간부들 앞에서 하신 역사적 연설 『해방된 조국에 대한 당국과 민족에 대한 건설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해방된 조선에 민주주의적인 정치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을 높이 달고 민족교육사업을 비롯한 민주주의적인 민족권리옹호사업에 한사랑같이 펼쳐나섰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또다시 일본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될 재일동포들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재일동포들도 이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이 끌어오는 승리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 제 1차 회의를 소집하시고 주체 37(1948)년 9월 19일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여 지난 날 이역땅에서 식민지 노예로 벌리받고 천대받던 재일동포들도 조국하고 싶은 자기들의 심정을 담은 편지를 위해 한 수령님께서 삼가 올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이 끌어오는 승리를 헤아리면서 재일동포들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재일동포들을 위한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이 끌어오는 승리를 헤아리면서 재일동포들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재일동포들을 위한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이 끌어오는 승리를 헤아리면서 재일동포들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재일동포들을 위한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을 위한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기상 만대에 떨치리

## 혁명연극 《경축대회》 공연 진행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혁명연극 《경축대회》공연이 15일 국립연극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해방의 감격과 환희가 삼천리강산에 차넘치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70년간 자주, 선군, 사회주의 길을 따라 승승장구하여 온 배두산대국의 영광 넘친 행로우에 영원 불멸할 뜻깊은 명절을 경축하는 관람자들의 격정으로 설레이고 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무역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평양시안의 일꾼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사회주의 조국에 제례하고 있는 해외동포들과 주조 어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무관부부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항일 혁명연극 《경축대회》를 유격대와 인민들의 경축대회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극은 항일유격대의 유인전술에 걸쳐 마상풀에서 저들의 경찰대가 높아난줄도 모르고 유격대를 《전멸》시켰다고 판동군 사령부에 보고하는 《로벌대》며 장, 제2000들의 《전파》를 인정하며 《경축대회》를 퍼들썩하게 벌렸을 것을 명령하는 판동군부참모

국립연극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혁명연극은 항일유격대를 일제 《로벌대》를 통폐하게 소멸하고 놈들이 유격대를 《소멸》했다고 혀위선전을 하며 벌린 《경축대회》를 유격대와 인민들의 경축대회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극은 항일유격대의 유인전술에 걸쳐 마상풀에서 저들의 경찰대가 높아난줄도 모르고 유

격대를 《전멸》시켰다고 판동군 사령부에 보고하는 《로벌대》이며 《전파》를 인정하며 《경축대회》를 퍼들썩하게 벌렸을 것을 명령하는 판동군부참모

그들은 연극을 보면서 가련한 일제의 달로에서 침략자들은 이렇게 여기들어 수스.isPresent을 배

조국해방 70돐경축 평양시청년 학생들의 야회가 15일 저녁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를 재현한 혁명연극 《경축대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성황당》식 혁명연극으로 창조된 기념비적 명작으로서 지구시대 혁명투쟁의 교과서,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 세기와 날대를 이어 빛을 뿐리고 있다.

그들은 연극을 보면서 가련한 일제의 달로에서 침략자들은 이렇게 여기들어 수스.isPresent을 배

의 전통을 기록하였지만 반제투쟁의 승리의 전통은 영원히 선군조선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과 조국건설 업적을 대내 순순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렇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쳐놓았습니다.

필승의 신심드높이 최후 승리의 경축대회장을 향하여 푸른 풍물에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 투정과 삶의 고귀한 진리를 새겨주는 혁명연극 《경축대회》는 관람자들의 질찬을 받았다.

필승의 신심드높이 최후

승리의 경축대회장을 향하여 푸른 풍물에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 투정과 삶의 고귀한 진리를 새겨주는 혁명연극 《경축대회》는 관

람자들의 질찬을 받았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과 조국건설

업적을 대내 순순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燠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

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

쳐놓았습니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과 조국건설

업적을 대내 순순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燠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

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

쳐놓았습니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과 조국건설

업적을 대내 순순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燠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

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

쳐놓았습니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과 조국건설

업적을 대내 순순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燠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

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

쳐놓았습니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과 조국건설

업적을 대내 순순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燠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

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

쳐놓았습니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과 조국건설

업적을 대내 순순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燠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

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

쳐놓았습니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과 조국건설

업적을 대내 순순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燠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

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

쳐놓았습니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과 조국건설

업적을 대내 순순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燠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

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

쳐놓았습니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과 조국건설

업적을 대내 순순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燠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

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

쳐놓았습니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과 조국건설

업적을 대내 순순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燠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

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

쳐놓았습니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과 조국건설

업적을 대내 순순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燠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

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

쳐놓았습니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과 조국건설

업적을 대내 순순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燠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

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

쳐놓았습니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과 조국건설

업적을 대내 순순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燠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

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

쳐놓았습니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과 조국건설

업적을 대내 순순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